칫솔 사는데도 돈 한뭉치…'숨' 세다 숨 넘어갈판

〈SUM:우즈벡 통화〉

현장 리포트

우즈벡선 5000숨짜리 지폐가 최고액권
달러 가치 높아 환전방법따라 최대 2배차
신용카드 사용땐 사실상 2배이상 손해

"칫솔과 치약 사는 데도 돈이 한 뭉치 필요하니까요."

9월 5일(한국시간) 열릴 우즈베키스탄과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마지막 원정경기에 나선 축구대표팀과 동행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의 이야기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용하다는 여권을 가진 한국인들도 이곳을 방문하려면 상당히 깐깐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 비자발급이 쉽지 않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혀를 내두르는 일은 현지에서 벌어진다. 환전을 하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란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해 우즈베키스탄 통화 '숨(SUM)'은 세다보면 숨이 넘어갈 정도다.

이곳에서 환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일반 환전소나 공항, 은행에서 돈을 바꾸는 것과 암시장 등지를 찾아 현지 통화를 사는 방법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저마다 책정 금액이 다르다는 점이다. 공식 환율은 1달러에 4200숨이지만, 다른 루트를 이용하면 최대 8000숨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그만큼 달러 현금보유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같은 액수가 환전 방법에 따라 2배 차이가 나는 사례는 드물다.

이뿐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은 5000숨짜리 지폐가 사실상 최고액권이라 따로 돈을 담아두는 작은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한다. 식당이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쇼핑센터에서는 일부 카드를 받지만 이는 큰 손해다. 숨으로 결재될 경우, 2배의 돈을 더 지불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6만숨짜리 메밀국수를 먹은 뒤 돈을 한 뭉치 내밀고, 식당 종업원이 계수기를 이용해 돈을 세는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장면이다.

대표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원정비용의 처리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공식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도 아쉽다. 오늘과 내일의 가치가 달라 귀국 뒤 날아올 카드 내역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빤히 손해가 보이는 데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대표팀 스태프는 "선수단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돈을 얼마나 바꿔야 할지, 또 어디서 교환할지조차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며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결전의 장소 타슈켄트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이 9월 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분요드코르 보조경기장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태극전사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 뉴시스

10승3무1패…우즈벡에 강했던 태극전사들

타임트랙

최근 두 차례 원정경기선 무승부

9월 5일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2018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A조 원정 10차전은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다. 무조건 이겨야한다.

비기거나 패할 경우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시리아-이란전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한번 마음을 졸여야한다. 6만이 넘는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홈에서, 그것도 상대가 1명 퇴장 당한 수적 우세 속에서 이란과 비긴 한국의 현재 상황이 좋을 리는 없다. 주장 김영권의 실언과 잔디 논란 등 단 한 경기에서 너무 많은 이슈가 터지면서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운명의 상대인 우즈벡과의 역대 전적이 말해주는 상대적 우위다. 우리가 이란과의 상대전적에서 밀리며 주눅 든 것처럼 우즈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9위인 한국은 역대 A매치 상대 전적에서 우즈벡(FIFA 랭킹 64위)에 10승3무1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기록 중이다.

단 한번 패한 기록은 1994년 10월 3일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0-1로 진 경기다. 이후 22년 동안 13차례 대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월드컵 최종 예선만 놓고 보면 5승2무로 무패다. 1998프랑스월드컵 최종예선에서 한국은 홈에서 2-1 승리에 이어 원정에서 5-1로 크게 이기면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2006독일월드컵 최종예선에서는 홈 승리(2-1)와 원정 무승부(1-1), 2014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에서는 원정 무승부(2-2)와 홈 승리(1-0)를 각각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브라질월드컵 예선 2경기에서 모두 우즈벡의 자책골이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선 큰 행운이었다. 가장 최근의 대결은 지난해 11월15일 홈에서 열린 경기로서, 한국이 2-1로 이겼다.

하지만 한국이 역대 전적에서 앞섰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최근 2차례 우즈벡 원정경기에서 모두 비겼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우즈벡도 사상 첫 월드컵 본선행을 위해 이번 홈경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우리의 약점이다. 한국은 이번 최종예선에서 원정 무승(1무3패)이다. 2차전 시리아와의 중립지역 원정경기서 0-0으로 비긴 뒤 4차전 이란 원정(0-1 패)에 이어 중국(6차전)과 카타르(8차전) 원정에서도 각각 창사 참사(0-1 패)와 도하 쇼크(2-3 패)를 겪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맨유 친선전 풀타임 박지성 "대표팀 러시아행 믿는다"

통신원 리포트

9월 2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올드 트레포드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C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선수들이 출전한 자선경기가 열렸다. 박지성은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경기를 시작한 박지성은 여전히 많은 활동량을 자랑했다. 왼쪽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때로는 중앙 미드필드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

바르셀로나 누캄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1차전에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1 이겼고 이날 2차전에서는 2-2 무승부로 끝나 통합 5-3으로 맨유가 승리했다. 하지만 이날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이었다.

우승트로피 세리머니도 맨유와 바르셀로나 선수단이 함께 들었다. 자선 경기이면서 최근 맨체스터와 바르셀로나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던 경기였다. 두 차례 레전드 경기의 수익금은 두 팀의 후원재단에 기부된다. 경기 뒤 스포츠동아 통신원은 박지성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박지성과의 일문일답.

-오랜만에 올드 트레포드에서 뛰었다. 소감은?

"항상 올드 트레포드에서 뛰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 오늘 분위기도 좋았고 다른 반가운 선수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지난 번 처럼 이번에도 가족들이 현장에 와줬다."

-특히 친한 판 니스텔루이와 함께 경기 뛰어서 반가웠을 것 같은데?

"사실 판 니스텔루이도 엄청 오랜만에 만났다. 그래서 더 반가웠다. 오늘 서로 뭐하고 지내는지 그 동안 잘 지내는지 많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에겐 좋은 친구다."

박지성

-오늘 맨유의 감독을 맡은 앤디 콜이 통신원에게 '오늘 박지성을 보니 그냥 현역 선수로 뛰어도 될 것 같다'는 농담을 던지고 갔는데….

"(웃음)난 상당히 힘들었다. 현역으로 복귀 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하지만 오늘 양 팀 가운데 제일 어린 선수여서 그런 말을 해 주신 것 같다."

-은퇴 뒤에도 EPL나 맨유의 경기를 챙겨보는가?

"그렇다. 볼 수 있을 때 가끔 보는 편이다."

-오늘 유니폼에는 선수 이름 대신 MANCHESTER와 BARCELONA가 적혀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

"구단에서 알려준 것은 최근 맨체스터와 바르셀로나에서 일어난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깊은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안다."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행이 걸린 중요한 경기를 남겨 두고 있다. 오랜 경험이 있는 선배로써 조언을 한다면?

"선수들 스스로가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짧지만 그 기간 동안 준비를 잘할 것이라 믿는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종전을 앞뒀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는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다. 그 목표를 마지막 경기에서라도 꼭 이루길 바란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20억 1등 당첨 비결은?

로또플레이 분석번호 받아 구매한 결과.. 20억 1등 당첨! 가입문의 1666-6645

로또 1등 당첨자 진 씨는 "로또플레이 측에서 보내준 1등 당첨번호를 실제 구매를 한 후 지난 10일 불국사 극락전에 있는 복 돼지를 찾아가 1등에 당첨될 수 있게 빈 것이다" 그날 저녁 8시경 놀라운 일이벌어졌다. 번호 6개가 모두 일치 로또 1등(20억 7천8백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에 진 씨는 복 돼지 행운을 받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로또플레이에서 보내준 번호로 꾸준히 구매했던 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로또플레이의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동시에 당첨된 인증 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다.

정 씨(47세, 여자)역시 골드회원으로 가입하고 1등 분석 번호를 문자로 제공받은 지 5일 만에 로또 1등 (12억 6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며 큰 화제를 모았다.

로또플레이는 국내 최단기간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 면서 지금까지 1등 182회, 2등 910회, 3등은 28,801회를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영수증과 거래내역서 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l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들께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시스템 (통계기반)을 통해 분석 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수량 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이 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LOTTOPLAY.CO.KR

로또플레이 가입문의 1666-6645